

림' 공덕이 숲을 이뤘다는 뜻이니 시집에서 내내 스님 어머니를 모시고 산 보살심을 기리는 뜻이 담긴 법명이다.

"계절도 봄글씨로 손수 쓰셔가지고 저희 내외에게 따로따로 하나씩 낙관까지 찍어 주셨어요. 인연이죠. 인연. 스님이 돌아가신 건 섭섭하지만, 우리 집 안에 다녀가신 일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수광 선생 내외와 자녀들은 모두 불자지만, 형제들은 제각각이다. 여동생은 천주교. 남동생은 기독교. 막내는 불교. 간디 말씀처럼 히말라야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을 오르는 길은 저마다 다르다.

- 굶어죽어라!

수광 선생은 딱 한 번 법정 스님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다. 대전에서 윤희유 대리점을 인수하고 난 뒤 운영자금에 모자라 절절매다가, 법정 스님은 책도 쓰고 신문이나 잡지에 글도 많이 쓰시니 도와줄 힘이 있지 않겠느냐는 둘째 사람말에 용기를 내서 어렵사리 스님께 편지를 썼다.

"아마 72년쯤인가? 그 무렵 막다른 골목이다 싶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며 도움을 청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참 부질없는 말씀을 드렸구나 싶었어요. 그때 스님이 보내 주신 편지가 있어요.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스님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나중에 스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세우고 미국서 파리로 건너갔어요. 그곳서 끼니를 굶다 못해 어머니에게 전보를 치죠. <굶어 죽어가요. 아들>. 돌아온 답이 <굶어라. 엄마>이었어요. 냉정한 어머니말씀에 정신 차렸다는 이야기인데. 도둑놈 제발 저러다는 격으로 '아, 이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싶었지요. 곁을 조금 주변 또 기대고 싶었을 거예요. 그 도움 없이도 이제껏 잘 살아왔잖아요?" 그랬기에 다른 분들처럼 스님을 스승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수광 선생. 그 스님에 그 동생이다 싶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을까? "서운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스님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출가 외국인이라고 여기고, 모든 분들 스승이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스님께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 날은 좋은 날이다. 불쾌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 날은 나쁜 날이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은 오로지 내 생각과 말에 달린 것." 수광 선생이 집에 걸어놓고 늘 되새기는 법정 스님 말씀이다. 그렇게 늘 좋은 일만 떠올리며 살려고 애쓴다.

아이들과 함께 법정 스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수광 선생. 신림동 집은 제법 컸다. 24년 전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 "법정 스님이 해준 집이다."는 얘기가 돌았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는데 '아, 유병세를 이렇게 치루는구나' 싶었어요. 하하.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비선목이라고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를 범도 하다.' 그리고 말았죠."



스님이 겨울 산 위에 우뚝 선 소나무라면 수광 선생은 달빛을 거르는 소나무처럼 은근하다.

- 스님 덕이다

법정 스님이 고맙다는 인사는 하셨을까? "은 식구를 불러다가 불임암에서 재워주시고 계를 주셨으니 그게 표현이고 큰 인사지. 이를 받아내 재워주셨잖아요. 한 분이 출가해서 도를 깨치면 몇 대 전인척까지 그 빛이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형제들 모두 우에 있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큰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컸고. 제사 때 모이면 입을 모아 그러니까. '밥술이라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게 다 스님 덕이다.' 고."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병원에 게실 때 두어 번 갔어요. 그때는 말씀은 잘못하셨어요. 그저 스님 손을 잡고 '성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면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공덕됨이 같이 왔습니다.' 하고 집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손에 힘을 주지 못하고는 흐느꼈어요. 집사람은 그때 스님 손을 처음 잡았죠."

부처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이룬다면? "뭐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불교에 대해서... 허허. 대승경지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같은 소인들이 뭐 압니까? 경전에 쓰인 대로, 또 스님이 풀이해서 책에 많이 써 주신대로 '착하게' 말이지. 그렇게 사는 게 불자佛者된 도리가 아닐까요?" 수광 선생이 법정 스님 말씀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는 모기이야기다. "시어머니 모기가 집을 나서면서 저녁밥을 지어놓을까 보냐고 묻는 며느리한테 '모진놈 만나면 맞아죽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나면 언어먹을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저녁밥 차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덕은 베풀지 못할망정 산목숨 빼앗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민중의 삶과 신앙에서 불교의 새 길을 찾다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①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8년,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고봉사(高峯寺)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고려 말 결사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원묘요세(圓妙了世, 1163~1245)와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이 그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았다. 피폐해진 속세와 그러한 속세를 이롭게 하는 커녕 스스로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불교계의 암울한 현실. 무언가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두 승려의 뜻은 일치했던 것 같다. 승려대회가 끝난 이후 곧장 영통산(靈洞山) 장연사(長淵寺)로 옮겨 후학을 지도하던 요세에게 지눌은 정혜결사(正惠決社)에 동참하기를 권했고, 요세는 지체 없이 공산 회불감의 지눌에게 달려갔다.



천태종 종조 상월원각 스님

동행은 그리 길지 못했다. 불과 2년이 되지 못했을 때, 송광산 김상사로 이동하는 지눌과 헤어져 요세는 만덕사로 옮겨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눌의 수선사(修禪社)와 다른 길, 백련사(白蓮社)의 출발이었다. 지눌의 정혜결사에 동참하는 동안에도 요세는 참회와 예경의식을 거르지 않았다. 함께 수행했던 선자(禪者)들이 서잡회(徐雜會)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니, 선 수행에 전념하는 이들과 참회에 전념하는 '서잡회(徐雜會)' 요세는 어지간히 달랐던 모양이다.

요세가 왜 지눌의 정혜결사에 동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 사실로부터 수행 곧 수행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행의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지눌이나 요세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본래면목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눌의 시대에 선은 조사선의 시대와 달리 이미 민중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지눌이나 요세나 불교를 민중의 품에 안기고 싶어했지만, 민중을 구제하는 자비의 종교로 받아들였지만, 요세에게 있어서 선은 민중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요세는 수선(修禪)의 길을 포기하고, 참회와 예경과 청명염불의 길을 택했다. 무지렁이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선택한 결과였다.

700여 년 뒤, 국권상실기의 초입에 강원도 삼척의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민중 속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이도 있었다. 속명은 준동(準東), 밀양 박씨 집안의 후손이었다. 5세에 서당에서 글을 읽기 시작해 13세에 사서삼경을 통달했다니 수재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14세에 삼척의 유지공장에 취업해 세상물정을 접한 소년의 인생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로를 향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중반이니, 양곡은 일제에 수탈을 당하고 민중들은 끼니를 잇기 힘들어 도시로 그리고 이역 만주로 연해주로 떠났던 때이다.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조선 인이라면 곤궁의 극치를 이루던 시절이고,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계급문제가 등장하던 때이다. 한학을 공부하던 소년에게 세상은 그대로 성공하기 힘들 정도로 왜곡돼 있었다.

동네 뒤 삼태산에 들어가 도학을 뒤었다. 16세가 되던 해 고향을 작별하고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며 불교에 눈을 떴다. 이때 충북 지역에서 강백(康伯)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순관(金順寬) 화상에게 출가했다. 범명은 상월(上月), 법호는 원각(圓覺), 후에 대한불교천태종의 중창조가 된 스님이 바로 이때의 소년이다. 1930년 서린이 되었을 때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때부터 6년간을 중국의 불교성지들을 순례했는데, 관음보살 성지인 보타도를 비롯하여 천태산을 비롯한 4대 성지를 골고루 순례했다고 한다.

혹자는 그 발걸음에 오늘날의 성지순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시대의 중국 땅은 그것이 불교의 성지라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는 시절은 아니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했으니, 스님이 중국에 건너간 직후부터 중국과 일본은 근 15년에 이르는 긴 전쟁에 돌입한다. 전쟁은 실은 군인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실은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들이 우후죽순 쓰러져가는 현장을 의연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민중의 삶이 파괴되는 현장, 불보살의 성지가 서로 교차하는 땅. 그 땅에는 외면할 수 없는 민중의 고통과 간절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불보살의 기억이 교차하고 있었으리라.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센터 교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종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자발 밟아도 좋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호텔,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재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탁쳐울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